

시끌벅적 e-스타



'운명의 그녀'를 만날 확률은 거의 '0'

운명의 그녀와 결혼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수학시간 많은 학생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확률, 우리 인생을 확률로 살펴본 동영상 인기가 끌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등장한 이 동영상에는 우리의 인생이 확률에 따라 순서대로 담겨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을 살펴보면, 0의 개수가 너무 많아 세기도 힘들다. 8이라는 숫자 뒤에 11개의 0이 붙었다. 계산은 이렇다. 정자는 1cc당 1억 마리가 존재하며, 1회 사정에 약 3~5cc 정도가 분비된다. 수억 마리의 정자 중 수정되는 것은 오직 하나. 엄청난 확률을 뚫고 세상에 나온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유는 하나 대학에 가기 위해서... 4년제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했더니 100분의 29라는 계산이 나온다. 4년제 대학 정원은 약 33만 명, 대학 지원자 수는 약 77만 명. 슬며

고, 연애도 하지만 취업을 위해 다시 공부해야 한다. 정규직에 취직할 확률도 역시 100분의 29. 2008년 상장 회사 신입사원 채용규모가 약 4만 명에 한해 대학 졸업자가 27만 명 정도라고 한다. 파란색 세상 로또 외엔 방법이 없을까 했지만 로또에 당첨되면 100억 분의 12의 확률을 뚫어야 한다. 이걸 버락오바마가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태어날 확률 8천억 분의 1에, 같은 시대에 태어날 확률 1천700분의 1을 곱한 뒤, 다시 같은 나라에 태어날 확률 250분의 1과 결혼할 확률 10분의 1을 곱하면... 셀 수도 없는 숫자가 나온다. 결론은 하나다 셀 수도 없는 확률 속에 만난 그녀 혹은 그는 인생의 기적이나 마찬가지. 아끼고 사랑하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용수의 팝스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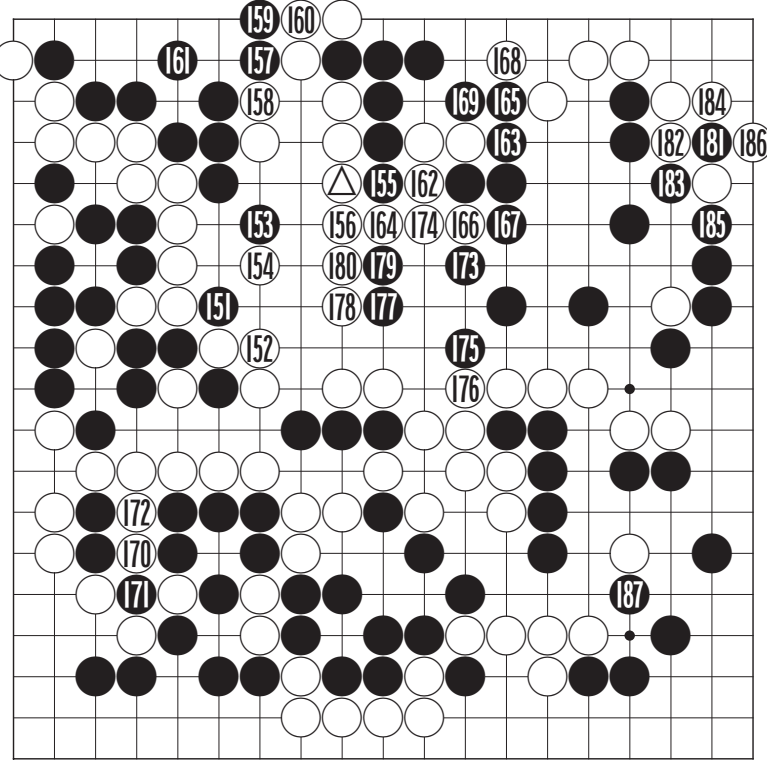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유럽에서는 봄을 만끽하며 각지에서 봄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과거를 기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전 세계인들의 연대의 날 노동절이다. 1886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노동 운동은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적으로 때로는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오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오늘은 소외되고 도태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노래한 Bruce Springsteen(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음악을 소개하고자 한다. 1978년에 발표된 그의 세 번째 앨범 Born To Run은 서민적인 록 음악 최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민초들의 삶을 직설적

오비슨의 스타일을 좋아했다. 그렇게 밤마다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감성적인 노래를 만들게 되는데, 새로운 날들에 대한 희망을 담아 만든 장조풍의 Thunder Road가 바로 그 곡이다. 이 곡이 타이틀인 Born To Run대신 앨범의 첫머리를 장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앨범의 타이틀인 Born To Run은 그의 공연에서 늘 불타고 지는 곡으로 수직 않고 일을 해야 겨우 하루, 하루를 연명하는 서민들의 분노를 표현한 음악이다. 이 앨범은 끝없는 동경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욕망에 관해 노래 했고, 나이를 초월해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흥분과 그 이면에 두려움을 지닌 인간의 양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

노동자 노래 즐겨 부른 브루스 스프링스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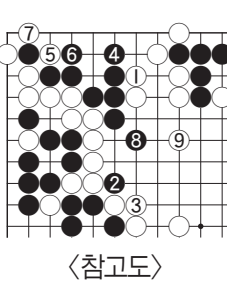
이면서 또 진솔하게 표현한 명반이다. 그가 음악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동고동락해온 동료들인 E-Street Band가 참여한 앨범을 들으면서 '이게 록 음악이야?' 하고 독특한 사운드에 다소 의아해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 앨범은 록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낭만적인 앨범이라는 찬사 속에, 그를 타임과 뉴스위크의 표지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 앨범을 제작할 때 브루스 스프링스틴 자신은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전에 발매된 두 장의 앨범이 모두 흥행에 실패한데다, 설상가상 그는 옹호해 주던 레코드 회사의 사장마저 교체되어 어느 곳에도 설 곳이 없는 안타까운 신세가 된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6개월 동안 공연을 떠났다가 돌아와 녹음을 했는데 그 와중에 드러머와 프로듀서도 교체가 되기도 했다. 힘든 여건에서 제작된 이 앨범은 이후 그의 상징적인 음악 스타일이 되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Roy Orbison이다. 늘 가장 하고 싶은 게 로이 오비슨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양한 운율을 가진 로이

마도 그는 언제까지나 이 양면성에 대해 노래를 할 것이다. 이후에 발표한 The River의 성공으로 그는 80년대 후반까지 영국 록음악의 위세에 주춤하던 미국 록 음악의 선봉장이 되었다. 그러나 인기가 치솟는 것과는 반대로 메시지를 잃어버린 그의 노래는 팬들의 외면을 받았고 참예기를 겪어야 했다. 1994년 영화 필라델피아의 주제가인 Street Of Philadelphia로 재기에 성공한 그는 1999년 마침내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다시 예전의 음악가로 회귀하고 있는 브루스 스프링스틴... 지금의 음악계가 그의 전성기와는 완전히 추세를 보이고 있지한 미국 사회의 아픈 부분을 꼬집고 진단하며 감동을 주는 그의 노래는 여전히 미국 록의 자존심이다. 노동자 계급의 꿈과 절망의 대변인이었던 그의 노래에 담긴 메시지는 무심코 하루의 휴일을 여기고 지나쳐버리기 쉬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소중한 꿈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유단자회 리그전

신기루처럼 사라진 찬스 9보 (151~187)



그로 록 기다린 역전의 기회가 눈앞에 현실화되자 임상빈 6단은 흥분한 상태에서 무심코 백으로 늘고 말았는데 이 수가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린 무책임한 수가 되었다. 박정규 5단이 웬 떡이냐는 듯 흑 151로 몰고 155까지를 선수한 다음 159로 내려서는 좋은 수로 살아버려자 임상빈 6단은 '닭똥먼 개처럼 먼 산만 쳐다보게 되었다.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흑의 양곤마를 일순간에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임상빈 6단은 어이가 없는 듯 자책을 해대더니 162부터 끝내기를 서둘렀으나 중앙이 초토화 된데다가 이미 벌어진 집차이를 만회할 길이 없다. 흑 181로 불이고 185까지를 선수한 것이 좋은 수순이며 흑 187이 피니쉬로, 이것으로 모든 변수는 사라졌다. 눈앞에 다가왔던 찬스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허망한 순간이다. 이후의 수순은 총보로 올린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올인' 차민수 바둑도 만만찮네 드라마 '올인'의 실제 주인공인 차민수 4단이 30일 서울 한국기원 1층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지지옥션배 여자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본선 1국에서 김윤영 3단에겐 184수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부친 차민수는 좌편에서 김윤영의 우편 흑대마를 잡으며 승리를 굳혔다. 주최 측 시드를 배정받아 출전한 차민수 2004년 응씨배에 출전한 이후 4년 만인 지난 3월 춘란배 본선에 출전하면서 공식대국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0분 30초 3회다. 상금은 우승 7천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화훼 관리하기 ①
1. 너무 많은 물을 주지 않는다.
뿌리는 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필요로 한다.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물을 주면 뿌리가 항상 물에 젖어 있어 식물이 죽게 된다. 물을 줄 때에는 화분의 토양을 손으로 만져서 마른 듯할 때 토양이 충분히 젖도록 주어야 한다.
2. 여분의 공중 습도를 준다.
건조한 실내에 화분을 두면 뿌리에서 흡수하는 수분의 양보다 증발되는 양이 많아 잎의 끝이 마르게 된다. 그러므로 건조한 실내에 화분을 둘 때에는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도 좋다.
3. 문제는 즉시 해결한다.
잎이나 줄기에서 솜뭉레나 딱지벌레, 진딧물 등의 작은 벌레를 발견하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잡아 주고, 살충제나 살균제를 스프레이로 살포하여 방제한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위험하므로 기급적 외부에서 사용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5월 1일(음 3월 26일 辛丑)
子 36년생 검은 조용한 듯하지만 속 고동은 있다. 48년생 직장생활의 침체와 재물의 불만이 얼어붙은 형상. 60년생 안도의 숨은 돌리지만 마음은 불안. 72년생 큰 고생을 없지않아 큰 득도 없다. 84년생 이생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21, 25
丑 37년생 좋은 일보다는 흉사가 중된다. 49년생 평은 얼어붙어 신체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 61년생 눈물 날 일이 생겨 날 수도 있다. 73년생 고역이 가중된 형상이니 마음을 편히 하라. 85년생 대고는 없고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05, 26
寅 38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다. 50년생 천지간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해가 없다. 62년생 마지막 불행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74년생 길사가 계속될 수도 있으나 지나치면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17, 29
卯 39년생 새책이 나오려면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하라. 51년생 남아사이에 숨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63년생 직장생활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75년생 부부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12, 30
辰 40년생 겨울날엔 땅을 만나는 형상이니 계운이 없다. 52년생 형제 친척으로부터 말썽이 빚겨져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다. 64년생 내 것 없고 누르짖는 꼴이다. 76년생 부부사이에 소사 병점을 조심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1, 34
巳 41년생 정중동행나 결과 불미할까 두렵다. 53년생 문서로 인한 기간과 사기를 조심하라. 65년생 친구관계로 인한 고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7년생 현 위치에서 만족을 얻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09, 36
午 42년생 구사가 신사로 바뀌어서 괴로움을 주는 형상이다. 54년생 조상에 대한 것이 친척간의 불상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 66년생 옛것으로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78년생 담당할 침체가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08, 37
未 43년생 전쟁이 발생한 형국이다. 55년생 부부간의 평화가 다가오며 이사 변동이 있을 수 있다. 67년생 유쾌한 형상이고 길사로 연결된다. 79년생 처음 좋은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서 길사가 다가온다. 행운의 숫자: 07, 40
申 44년생 문서로서 사기 당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 56년생 친구로 인해서 침체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69년생 아랫사람에게 보시는 마음을 내 것을 내어주라. 80년생 고생이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14, 38
酉 45년생 뒤처리를 할 사람이 나타나 마무리를 한다. 57년생 타인의 속임수에 동참할까 두렵다. 69년생 주변의 괴물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81년생 새책이 한 서리를 만나는 형상이니 매우 조심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03, 45
戌 46년생 주변의 시끄러움이 나에게 물러온다. 58년생 옛 것으로 인한 불행이 예상된다. 70년생 시비의 발단이 우려되고 구설수가 있다. 82년생 계획이 차질이 우려되고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1, 35
亥 47년생 주변 내고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59년생 남편과 자녀에게 불리한 입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71년생 순조로운 진행은 있으나 배인 편에 간섭상이 있을 수도 있다. 83년생 큰 부자는 안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04, 44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제문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51>
Where did you learn to sing like that?
어디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법을 배웠는가?
A: You have a great voice.
B: Thanks.
A: Where did you learn to sing like that?
B: I graduated with a degree in music.
A: 자네 목소리 좋구먼.
B: 감사합니다.
A: 어디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법을 배웠는가?
B: 저는 음악 학위를 받았습니니다.
* 그스웨터 어디에서 샀는가?
= Where did you buy that sweater?
* 저녁식사를 하러 어디로 안젤라를 데리고 갈 건가?
= Where did you take Angela for dinner?
* 어젯밤 자네 떠난 후에 어디로 갔었나?
= Where did you go after you left last night?
오하오우 니혼고 <1151>
あ、でもここに傷(きず)がついてるよ。
와, 하지만 여기에 흠집이 있어
A: デバトですてきなコヒカップ見(み)つけたから買(か)ったの。かわいいでしょう。
B: うん、すてきなね。あつ、でもここに傷(きず)がついてるよ。
A: えっ、どこどこ? 本當(ほんとう)だ氣(き)づかなかったわ。
B: 品物(しなもの)は、よく見(み)て買(か)わないとね。
A: 백화점에서 멋진 커피 잔을 발견하여 샀어. 귀엽지?
B: 응, 멋있네. 와, 하지만 여기에 흠집이 있어.
A: 옛, 어디어디? 정말이네. 몰랐어.
B: 물건은 잘 보고 사야지.
見(み)つける: 발견하다, 찾다
傷(きず)がつく: 상처가 나다
氣(き)づく: 깨닫다, 눈치 채다
이하오 쑹구위 <128>
这是我的生日礼物。
이것은 나의 생일선물입니다
A: 这是谁的?
zhè shì shéi de
B: 我的。
wǒ de
A: 这双鞋是新的吗?
zhè shuāng xié shì xīn de ma
B: 是新的。
shì xīn de
A, 이것을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B: 제 것이입니다.
A: 이 신은 새것입니까?
B: 새것입니다.
鞋 [xié] 신, 신발
是 [shì] 신, 신발
한자 이야기 <768>
九死一生(구사일생)
아홉 구, 죽을 사, 한 일, 살 생
구사일생(九死一生)은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비유하는 말이다.
초(楚)나라 왕족이며 시인이었던 굴원(屈原)은 자신의 불우한 일생과 우국(憂國)의 마음을 장편시 '이소(離騷)'에서 노래하였다. 그 중 "간 한숨 쉬며 남몰래 우는 것은, 백성들의 고생을 애처로우 합"이라고 하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바른 말을 간하러다 곧 버림받고 말았지만, "자기 마음에 선(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아홉 번 죽을지라도 오히려 후회하지 않으리라(雖九死猶未其悔)"라는 부분이 있다.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의 '굴원열전(屈原列傳)'을 지으면서 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굴원의 강직함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구사(九死)'에 대하여, '문선(文選)'을 편찬한 유방주(劉良注)는 "아홉은 수의 끝이다. 충성과 신의와 곧음과 깨끗함[忠信貞潔]이 내 마음의 선(善)하고자 하는 바이니, 이 곤란(害)을 만나 아홉 번 죽어서 한 번을 살아남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회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 '아홉 번 죽어서 한 번 살지 못한다'라는 구절에서 구사일생(九死一生)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